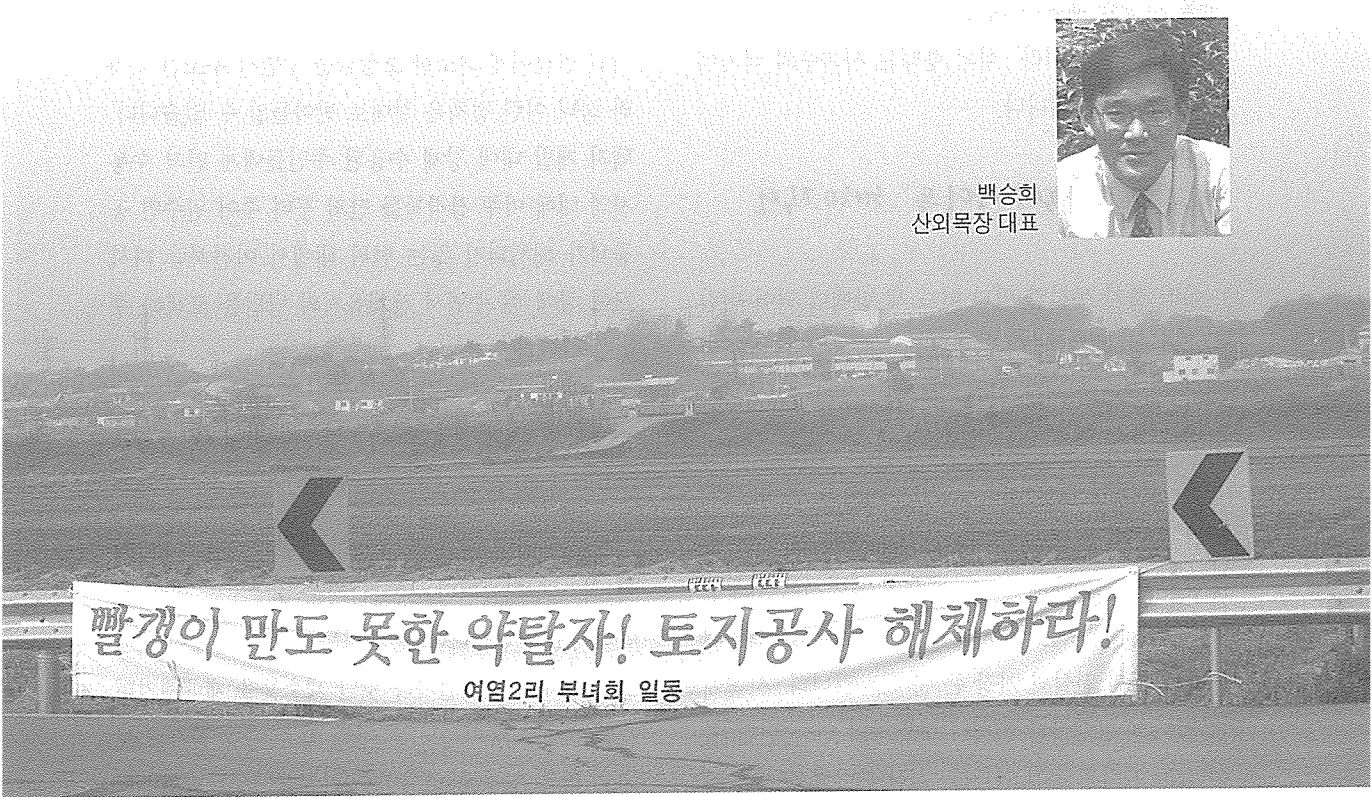


늙은 농부의 하소연



백승희
산의목장 대표



주한미군 위한 국제화도시건설로 떠나기야 하는 환갑지안 농부

가을 들녘에서는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들을 저마다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수확하고 있습니다. 일년 동안의 수고가 오늘에야 보상받는 것이므로 다들 지난 힘든 일은 잊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주한 미군을 위한 국제화 도시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평생

농사만 친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얼 하고 살지 걱정입니다. 토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만 조그만 논 몇 대기와 허름한 시골집을 보상 받아서 어디 가서 집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강제수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신도시 사업 설명회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신도시 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타진해보고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철저한 준비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책상머리에서 다 짜여져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주민들에게 '이렇게 수용되니 너희는 나가라' 식의 행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내 고향 "평택시 장당동" 해체 직전

아직 출가 못시킨 딸과 어느 새 반백이 되어 버린 아내와 살 곳은 "평택시 장당동" 내 고향입니다. 이제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택지 개발 사업은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 평화롭게 살아 온 원주민 공동체를 해체시키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 라는 따스한 고향의 해체가 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입니다. 이런 안락한 공간을 해



체 시키는 것이 택지 개발이고 신도시 건설이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도 가고 이사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갇힌 짐승도 아닌 인간에게 최소한 보상금을 주면서 무조건 나가라 하니 이런 정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택지 개발 내에 강제 수용된 주민들에게 먼저 수용 지역 내에 이주 정착지를 먼저 꾸며 주어 원주민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처럼 다시 모여 살게 해 주면서 생계유지의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합니다.

노박한 행복 일구며, 고향에서 살고파

저는 수십년 동안 이 곳에서 살면서 논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 논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맛난 채소들을 재배해가며 개도 키우고 송아지도 몇 마리 키워 아들 장가도 보내고 딸은 직장에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 나 같은 늙은 촌부도 행복을 바라는 권리는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눈과 허름한 집이 몇 푼 안 되는 하찮은 것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딸도 시집보내고 마누라와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남 보기에 하찮은 재산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너무나 커다란 재산입니다. 결국은 나의 모든 재산을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의 개발사업! 때문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사유 재산의 권리 행사도 더 발전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 믿습니다. 이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적게 남은 사람에게도 자기의 재산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소박한 행복을 가꾸며 고향에서 살아가다 죽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 안된 택지 개발 반대

그러나 현재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170여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공익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를 강행하려는 사업 시행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가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보상 제도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국민의 권리 의식을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보상 대책이 수립된 택지개발사업이라 해도 제가 살던 터전인 이 땅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수용되어 떠나야만 하게 된다면 옳치 않은 일입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수많은 공익 개발 사업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 이겠습니까?

저는 토지수용되는 지역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사꾼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안된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침



해하면서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평택 국제화 신도시' 건설을 반대합니다.

봄이면 눈 갈아 모심고 피사리도 하며, 여름이면 친구들과 물고기 잡아 매운탕을 끓여 소주 한잔하며, 가을이면 논바닥 사이로 도구를 쳐 추수하고 겨울이면 헝쌀로 가래떡 빚어 설날을 즐겁게 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당 넓은 내 집에서 애들과 강아지들이 뛰어 노는 모습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내리는 눈, 비를 쳐다보며 오래된 친구와 정겨운 얘기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운 생활들이 지난 과거의 추억거리로 변모해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미래가 펼쳐진다면, ... ㉟

'05. 12. 23.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평택 국제화 신도시 건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 생각해 보면서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 "이 강안 저자, 토지 수용 SOS" 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